

특별세션

1

River & Culture



하수용 | 우리협회 회장

[칼럼] 하천도 산업, 브랜드를 키우자

[본 칼럼은 「아시아투데이」 2014.8.4자에 게재된 글입니다.]

조선 영조시대의 지리학자인 신경준은 '하나의 근본으로부터만 갈래로 나뉘지는 것이 산이요, 만 가지 갈래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물이라고 했다. 이는 물이 통합과 조화의 상징임을 뜻하는 말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자원으로써 물을 다스리는 능력은 해당 문명과 시대를 대표하는 척도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발전했다는 21세기임에도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물과 관련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커져가고 있다.

2011년 태국, 2013년 인도와 필리핀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와 광화문광장, 올림픽도로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의 후난성에서는 2013년 기록적 폭염과 가뭄으로 식수난에 시달렸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태백지역 가뭄과 같이 2~3년 주기의 국지적 가뭄과 7년 주기의 극한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물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 많으면 홍수가 되고, 부족하면 가뭄을 가져와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치수, 이수, 하천환경 관련 사업에 역사와 문화 요소를 결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수자원관리 개념에 충실한 하천산업의 실행에 주력해야 한다. 하천산업 분야는 하천의 수량 및 수질관리와 친수환경 조성 및 녹색도시 건설 등의 복합 사업뿐만 아니라 유역 내 댐 건설, 상하수도 시설 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하천내외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하천유역단위의 통합수자원관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1992년 리오(Rio) 지구정상회담 '아젠다(Agenda)21'에서 수자원관리의 기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합 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는 중요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해침이 없이(Sustainability), 공평한 방법으로(Equity), 국가경제와 사회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Efficiency) 수자원과 토지 및 관련자원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수자원의 관리가 하천유역단위로,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을 함께 고려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하에 이루어짐을 실행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천유역단위의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필수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효율적인 수자원 정책과 법령제도의 구축이며, 둘째로는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조직체계의 구축과 구성원의 능력배양, 그리고 수자원의 최적관리를 위한 각종 기술적, 행정적 및 규제적 수단들이다. 이들 세 가지 필수 수단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천유역의 통합수자원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통합수자원관리에 의한 국내 하천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세 가지 필수 수단의 개선을 이루기 위한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해외에 우리의 하천산업과 연관된 수자원 기술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활성화도 필수

다. 구체적으로는 수자원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및 주도를 위한 의제 개발,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국제화를 위한 교육 실시, 국제기구 유치 등이다.

이런 면에서 대구·경북의 금호강에서 2015년 4월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 물 포럼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물 관련 이슈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천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국제적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

